"사찰음식 수익, 사회에 환원"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사찰음식점 수자타 운영하는 미륵사 주지 혜법 스님

'광주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무등산을 가는 초입에 서면 '수자타 사찰음식'이라는 팻말을 마주한다. 광주지역에서 사찰음식 대중화를 표방하며, 최초의 뷔페식 사찰음식전문점을 운영하는 혜법 스님(사진 · 미륵사 주지)은 늘 분주하다. 새벽부터 시작하는 음식준비로 바쁜 '수자타'는 매일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광주의 사찰음식 명소다.

미륵사에서 운영하는 수자타는 3개의 대형 연희홀과 1개의 소형홀로 구성된 총 550평 면적, 3층 규모의 공간이다. 1층의 대형홀은 400여 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일반식당 공간이고, 2~3층은 다양한 불교행사나 돌잔치 등 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불교계의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고, 일반인들의 결혼과 만남 행사도 열리는 광주 불교계의 소중한 공간이다.

"수자타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하고, 약간의 공양비는 사찰을 유지하거나 불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매일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수자타라는 사찰을 찾는 것입니다."

혜법 스님이 2006년 사찰을 운림동으로 이전한 후 2009년 사찰음식점을 개설해 어느덧 8년째 이르렀다. 불교세가 약한 광주서 오랜 기간 운영하기는 분명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스님은 미소를 띠며 "괜찮았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2~3년 만에 무너질 것이라 했어요. 지역 불교세도 약한데다가 이런 대형공간에 사람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다보니 결실은 자연스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스님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수자타'는 이미 광주에서 사찰음식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더불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먼 타지의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수자타에는 매일 밥류 · 밑반찬 · 요리 · 채소 · 탕류 등 90여 가지의 음식이 나온다. 이 많은 가짓수는 20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정성껏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식대는 1인 7,000원에 불과하다. 사찰음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님의 배려가 담긴 금액이다.

매일 90여 가지 음식 만들어
8년째 불교문화 지역에 알려
불교복지 공간 위한 불사도

그렇다면 수자타 사찰음식의 핵심은 무엇일까? 혜법 스님의 답은 간단했다. '제철음식을 만드는 것'과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 2가지다.

스님은 음식에 특별하거나 화려한 장식을 배제한다. 정확한 간만을 맞춘 간결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차려진 정갈한 음식은 종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수자타를 찾는 요인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자타를 통한 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됐다. 현재 7,000평의 땅을 90억 원에 매입해 복지시설 불사를 진행 중이다. 사찰의 수익사업이 불교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좋은 예가 된 것이다.

"미래의 불교복지공간을 계획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원룸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을 마련해 제공할 겁니다."

혜법 스님을 통해 수자타가 도심의 문화공간이자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난달 완공된 증심사 신규 템플스테이관. 이곳은 각종 편의시설을 내부에 갖추고 있다.

퇴근 후 산사 머무는 템플스테이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안성맞춤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일반인이 출퇴근 하듯 사찰서 5박6일 동안 머물며 일상생활과 산사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인들을 위한 '출퇴근 템플스테이'란 명칭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사찰에 머물며 스님과의 차담과 선택적 문화체험을 즐기며 개인의 온전한 휴식과 새로운 삶의 원동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템플스테이다.

프로그램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5박6일 동안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은 출근 전과 퇴근 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출근 전에는 오전 4시 기상해 예불을 시작으로 명상, 108배, 아침공양 등이, 퇴근 후에는 스님과의 차담, 촛불명상, 다스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템플스테이는 당일형과 휴식형, 체험형, 맞춤형 등 다양한 형태로도 운영된다. 당일형은 2~4시간동안 사찰음식 체험과 스님과의 대화 등이 진행되며, 휴식형은 사찰 산책, 스님과의 차담, 다도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형은 사찰에 머물며 예불, 108배, 공양, 참선, 포행(산책) 등을 할 수 있으며 맞춤형은 신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다.

광주 증심사, 직장인 위한
출퇴근 템플스테이 마련

출퇴근 가능이라는 독특한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것은 증심사가 무등산에 있으면서도 차량으로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뛰어난 접근성에 기인한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증심사는 지난달 사업비 총 15억 원을 들여 템플스테이 전용관 3동을 완공하고 전체 40여 명의 참가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다. 신규 템플스테이관은 각 방에 2~3인이 숙식 가능하며, 방별로 욕실과 냉난방기기, 사물함 등이 구비되어있는 한옥양식의 최신시설이다.

조영훈 종무소 담당자는 "바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휴식과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랜 시간 도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사찰에서의 명상과 내면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사회에서도 적용해 일주일간 명상휴식과 생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심사는 2008년 광주 지역 최초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이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선정하는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지역 대표 사찰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자리로 행복 보장받는 老年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사업 발대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고창군노인복지관은 3월 3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이호근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발대식은 이종인 · 김영순 어르신의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이어 직무 및 소양교육, 안전교육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교육을 시행했다.



올해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기타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124명), 공공시설봉사 분야로 학교주변 환경 안전 계도 관리 지원사업(79명), 공공의료 기관 및 복지시설관리 지원사업(70명),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지원사업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장형사업 지역보육시설 및 아동센터 도우미파견사업(30명)을 수행하고 발생된 수익금을 참여자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다.

행사에서 고창군노인복지관장 대원스님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3~10월 '마음 쉬는 수요일' 운영

마지막 주 수 · 목 1박2일간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가 전통산사와 문화재에 깃든 불교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산사는 오는 3월 29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 · 목요일 1박2일간 '마음 쉬는 수요일-문화가 있는 수요일, 전통산사를 찾아갑니다'를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수요일에는 치유공간 '이웃' 대표인 정신건강 전문의 정혜신 박사와 전주시립예술단원인 이창선 대금연주자가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 '내 마음이 지옥일 때'가 진행된다. 목요일에는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체험과 걷기명상, 탁본체험 등 불교문화체험 등이 이어진다.

매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산사에 깃든 정신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산사체험 및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 금산사, 정읍 내장사, 남원 실상사, 완주 송광사, 고창 선운사 등 5곳의 사찰이 선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현옥 시인 4집 〈위안부의 눈물〉 발간

최근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아픔을 기억하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불자시인의 시집 출간이 눈길을 끈다.

조현옥 시인은 4집 시집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을 출간했다. 시집에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0명의 증언을 시로 표현한 글이 담겨 있고, '나비의 거처' '돌아온 소녀' 등 52편의 창작시가 담겨져 있다.

조현옥 시인은 발간사를 통해 "이역만리 타향에서 일본 군인들의 강제적 성노예로 무참히 사라져 간 분들의 영혼들을 위해 시집을 바친다"며 "과거는 수정될 수 없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하물며 사죄는커녕 한국의 소녀상까지 철거하라는 요구를 하는 일본을 보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고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쌩뚱! 맞은 소리!

소리공학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국 법당들의 소리는
심오한 염불정서와 전혀 다른 쌩뚱맞은 소리로! 이런 소리에 내 염불을
실림으로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게 들림에서 목이 가고 수 만번
반복 속에 만성피로에 젖어듬에도 원인조차 모른체
참으로 힘들게 염불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

법당소리 비교시 놀랍도록 선명한 소리의 차이에 고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말없이 쌔엥! 가버리는 이유는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지만 어마! 어마! 한
소리의 차이를 잊지않고 고민이 정리되면 반드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앰프 다루기 1초! 고장도 없지만 지금은 A/S가 부실하면 문을 닫는 시대!
토탈시스템 완벽시설후 귀 법당 기존 시설의 평균 절반가격 할부가능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은 각종 제품이 다 있으니 소리구경 하세요!

☎ 055) 343-1191, 010-9471-2026
(주) 염불소리 대표 공 희 (소리공학 저서)